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

- 김사무엘 선교사 -

오사카 온누리교회 목사, 현 한국 선교부 대표, 온누리 세계선교훈련센터 원장

요한복음 14장22절 말씀에 주님의 한 제자인 유다가 그의 마음속에 매우 의문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점을 이렇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제자가 가졌던 의문은 왜 열두 명의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으며 학문이나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수많은 군중들이나, 아니면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세도가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과 기적의 능력으로 저들을 제자 삼아 전파하면 오히려 온 천하가 하루 밤에 변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요 또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만을 모아 제자로 삼으셔서 가르치시고 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23절)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동문서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유다의 질문에 전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선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남기신 말, 부탁하신 말씀, 당부하신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중심에 새겨져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결정하며 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런 말씀이 그 마음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새겨진 그 사람이 곧 사명을 받은 사람,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있는 바로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집으로 삼아, 그 사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므로 성육신 하셨던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도 주님이 직접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바랐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이 전파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말씀을, 명령을,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옮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의 능력과 살아 계시는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삼으셔서 땅 끝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